



국민들은 최상위층의 부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할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다. 캐나다에서부터 스웨덴까지 이르는 큰 정부들 안에서 정부부문은 대중의 지지와 함께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낮은 비율의 세금이 인기가 있고, 여전히 작은 정부가 정치적으로 인기가 있다.

피케티는 평등이 목표인 질투의 정치를 장려한다. 피케티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안하는 정책들은 소득분배의 상위계층을 끌어내림으로써 분명히 해소될 것이라고 말한다.

번역: 조성환 자유경제원 인턴

출처: <http://blog.independent.org/2014/05/21/piketty-on-inequality/>